

KOSDAQ |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인터로조 (119610)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로 26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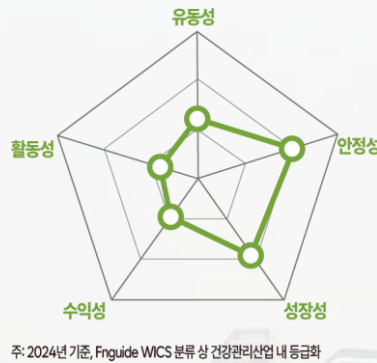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인터로조는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소프트렌즈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국내 유일 상장 콘택트렌즈 제조기업
- 2026년 1분기 미국 FDA 510(k) 승인 시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1위 콘택트렌즈 시장인 미국 진출 본격화될 전망
- 생산 수율 2024년 말 62%에서 2026년 2월 말 76%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며 수익성 개선세 본격화
- 2026년 국내외 채널 확장과 함께 수출 개선 지속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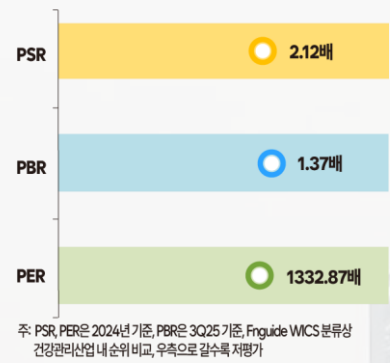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인터로조 (119610)

Analyst 조영환 yh.cho@kirs.or.kr
RA 박규연 park.gyuyeon@kirs.or.kr

KOSDAQ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국내 및 해외 채널 확대 지속 중

국내에는 2025년 면세점 입점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자체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음. 해외는 유럽 대형 리테일 기업 S사 및 G사와의 OEM/ODM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며, 세계 1위 콘택트렌즈 시장인 미국에서 2026년 1분기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 제품에 대한 FDA 510(k)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승인 획득 시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며, ASP가 비교적 높은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중심의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

생산 수율 빠르게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세 본격화

생산 수율은 2024년 말 약 62% 수준에서, 2026년 2월 기준 약 76%까지 상승하면서 수익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2025년 GPM +4.7% YoY). 특히 분리 공정과 검사/접착 단계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는데 분리 공정 수율은 2024년 말 78%에서 2025년 말 95%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검사/접착 단계 역시 92%에서 98%로 개선. 당사는 2026년 상반기 전체 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가 개선을 이어갈 계획

2026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전망

2026년 예상 매출액은 1,371억 원(+15.7% YoY), 영업이익은 291억 원(+49.5% YoY)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국내외 채널 다변화에 따른 외형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가 전사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또한 공정 효율화에 따른 생산 수율 개선이 지속되면서 2026년에도 원가 절감 효과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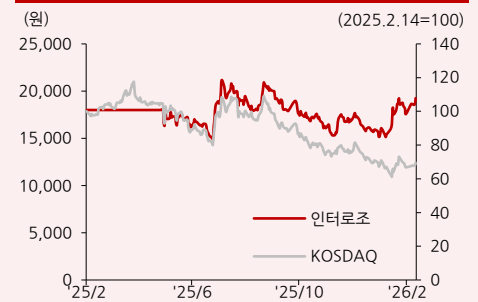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1,178	1,193	1,158	1,185	1,371
YoY(%)	96	1.3	-2.9	2.3	15.7
영업이익(억원)	242	52	58	195	291
OP 마진(%)	205	4.4	5.0	16.4	21.2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86	32	2	130	212
EPS(원)	1,411	239	14	1,003	1,639
YoY(%)	21.7	-83.1	-94.2	7,088.6	63.5
PER(배)	14.5	95.6	1,290.6	16.0	11.7
PSR(배)	2.3	2.5	2.1	1.8	1.8
EV/EBITDA(배)	11.8	29.9	21.6	6.5	5.9
PBR(배)	1.5	1.7	1.4	1.2	1.3
ROE(%)	10.6	1.8	0.1	7.5	11.6
배당수익률(%)	2.9	2.6	1.7	4.1	3.4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2/24)	19,250원
52주 최고가	24,900원
52주 최저가	14,950원
KOSDAQ (2/24)	1,165.00p
자본금	66억원
시가총액	2,19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7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2억원
외국인지분율	8.14%
주요주주	노시철 외 27인
	376.7%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39	72	-22.7
상대주가	5.7	-28.0	-49.8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 회사개요

**인터로조는 소프트렌즈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국내
유일 상장 콘택트렌즈 제조기업**

인터로조는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당사는 2000년 설립되었으며 2006년 경기도 평택에 자체 생산 설비(제1공장)를 구축한 이후 해외 OEM/ODM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2010년에는 자체 브랜드 클라렌을 출시하며 국내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고, 같은 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2012년 제2공장을 완공하며 생산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였고 2021년에는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제3공장을 완공하였다. 3공장은 자동화 설비를 갖춘 생산라인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군인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당사는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재고자산 관련 회계 이슈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2024년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확보하였고 2025년 5월 13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향후 2027년까지 지정감사를 통해 재고자산 관리 체계와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하이드로겔(Hydrogel) 및 실리콘하이드로겔(Silicone Hydrogel) 기반의 원데이 및 FRP(2주~1개월 착용) 렌즈다. 대표 브랜드로는 하이드로겔 기반의 클라렌과 실리콘하이드로겔 기반의 오투오투가 있다. 해외에서는 주로 고객사와의 OEM/ODM 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안경원, 렌즈 전문샵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Q25 기준 수출 비중은 약 82%로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유럽을 중심으로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 PIA와의 장기간 거래를 통해 하이드로겔 기반 컬러렌즈 등 컬러 제품 중심의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당사는 세계 최대 콘택트렌즈 시장인 미국에서 실리콘하이드로겔 투명 렌즈 제품에 대한 FDA 510(k)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승인 획득 시 현재 매출 비중이 낮은 미국 시장에서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로조 연혁

2000~2010	2011~2019	2020~
2000.10 (주)인터로조 설립(2000.10.25) 2000.12 공장시설 등록승인(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260-1) 2001.09 미국 FDA 품목허가(Polymacon) 2001.10 CE, ISO9001, EN46002인증 획득 2001.10 미국 수출 개시 2001.12 기술연구소 승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2.05 벤처기업 승인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2003.04 우수의료용구 제조, 품질관리업체 선정(KGMP)-식품의약품안전청 2003.04 우량기술기업 선정(기술보증기금) 2003.07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경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04.08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선정(경기지방중소기업청) 2005.05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GMP) 2006.09 제1공장 준공(본사 이전) 2008.11 콘택트렌즈 독일수출 개시 2008.11 500만불 수출의탑 /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2010.04 울트라수 신기술(NET) 인증 2010.04 일화용 콘택트렌즈 '클라렌' 국내출시 2010.07 코스닥시장 상장 2010.11 신기술(NET)실용화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2010.11 1000만불 수출의탑 수상(무역협회)	2011.12 원데이 뷰티렌즈 '클라렌 아이리스' 런칭 2012.03 제 2공장 준공 2012.07 주식 무상증자 (5,350,000주 → 10,700,000주) 2012.12 2000만불 수출의탑 수상(무역협회) 2013.06 원데이 뷰티렌즈 '클라렌 아이리스 랩소디' 런칭 2014.06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2014.09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선정 (Forbes) 2014.1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2015.06 원데이 뷰티렌즈 '수지그레아' 런칭 2016.03 난시교정을 원데이 뷰티렌즈 '알리샤 브라운' 런칭 2017.07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선정 (Forbes) 2017.12 3000만불 수출의탑 수상(무역협회) 2018.12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에어수' 런칭 2019.06 원데이 필렌즈 '아스트라' 런칭 2019.08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선정(경기지방중소기업청) 2019.12 유럽MDR CE 인증	2020.03 블루라이트 차단 원데이렌즈 '프리덤380' 런칭 2020.06 클라렌 아이리스 원데이토락 '헤일로' 런칭 2020.12 실리콘 하이드로겔 클라렌즈 '클라렌O2O2 컬러M' 런칭 2020.12 5000만불 수출의탑 수상(무역협회), 무역의날 무역인 대통령 표창 수상 2020.12 월드클래스 유공자 포상 2021.01 제 3공장(52만) 준공 2021.03 실리콘 하이드로겔 클라렌즈 '클라렌O2O2 컬러 원데이3종' 런칭 2021.06 자회사 법인 (주)메디엔토 설립 2021.08 실리콘 하이드로겔 클라렌즈 '클라렌O2O2 컬러 원데이2종' 런칭 2021.11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클라렌O2O2 원데이' 런칭 2022.09 실리콘 하이드로겔 클라렌즈 '클라렌O2O2 컬러 원데이토락' 런칭 2022.12 21년 벤처 천억기업(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 2023.05 자회사 법인 (주)메트로스 설립 2023.09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클라렌O2O2 M' 런칭 2024.05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클라렌O2O2 원데이 클리어 토락' 런칭 2024.08 유럽 CE MDR(2017/745) 취득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사업 및 제품

**제품은 착용주기(원데이/FRP),
재질(하이드로겔/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컬러(클리어/컬러) 기준으로
구분**

인터로조는 소프트 콘택트렌즈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품은 착용주기(원데이/FRP), 재질(하이드로겔/실리콘하이드로겔), 색상(클리어/컬러) 기준으로 구분된다.

주요 자체 브랜드 제품

동사의 제품은 소재에 따라 하이드로겔 기반의 클라렌 원데이(클리어), 클라렌 아이리스(컬러)와 실리콘하이드로겔 기반의 클라렌 오투오투로 구분된다. 또한 교체 주기(원데이/FRP)와 색상(투명/컬러)별로 세분화된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기준 약 35~40개의 SKU를 보유하고 있다.

원데이(하루 착용) / FRP(1개월 이내 교체형)

3Q25 누적 별도기준 매출비중은 원데이 70%, FRP 30%로 구성되어 있다.

원데이 제품은 하루 착용 후 폐기하는 구조로, 별도의 세척이나 보관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위생 관리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단백질 침착 등 사용 중 누적되는 오염 리스크가 낮다. 특히 매일 착용하지 않고 필요 시에만 사용하는 경우(운동, 여행 등)에 적합하며 관리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FRP는 일정 기간 반복 착용 후 교체하는 방식의 제품으로, 세척 및 보관을 전제로 사용된다. 동일 렌즈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구조인 만큼 월 기준 비용은 원데이 대비 낮은 편으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비교적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관리 상태에 따라 착용감 저하나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이드로겔 / 실리콘하이드로겔

3Q25 누적 별도기준 매출비중은 하이드로겔 제품 89%,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11%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드로겔은 수분을 머금은 친수성(親水性) 고분자 소재 기반으로, 1960년대 개발된 이후 소프트렌즈에 널리 사용되어온 소재다. 수분 함유량을 높게 설계할 수 있어 초기 착용감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컬러 및 그래픽 구현이 용이해 컬러 렌즈 제품군과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산소가 수분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인 만큼 설계에 따라 산소 투과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건조한 환경에서는 착용감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실리콘하이드로겔은 하이드로겔 구조에 실리콘 성분을 결합하여 산소 투과성을 개선한 소재다. 실리콘 자체가 산소 전달에 유리해 각막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장시간 착용 시에도 눈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리콘은 친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어 렌즈 표면의 수분 유지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착용감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표면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 또한 제조 공정 난이도 역시 하이드로겔 대비 높은 편이다.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는 건강과 착용 안정성에 비교적 관심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글로벌 기준 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2배 이상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클리어(투명) / 컬러

3Q25 누적 기준 매출비중은 클리어 30%, 컬러 70% 수준으로 파악된다.

클리어 제품은 색상이나 그래픽이 없는 시력 교정 중심의 제품이다. 소비자의 구매 목적이 명확하고 재구매 주기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제품 선택 기준은 도수 범위, 산소 투과성, 착용감, 건조감 등 기능적 요소에 집중된다.

컬러 제품은 홍채 패턴과 색상을 구현해 미용적 효과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자연스러움, 직경, 색감, 그래픽 디자인 등 감성적 요소가 구매를 좌우한다. 이에 따라 SKU 수가 많고,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채널 전략과 브랜드 마케팅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인터로조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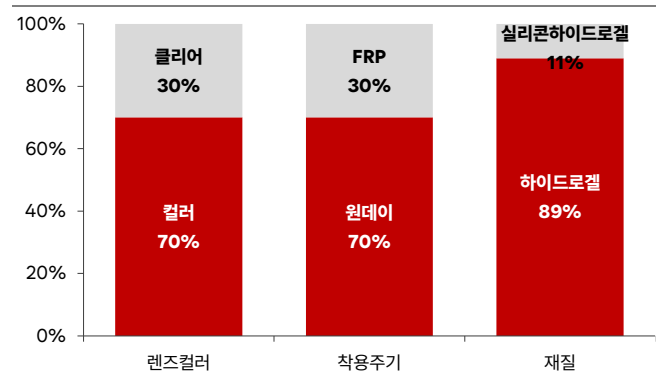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제품 구분

렌즈컬러	클리어렌즈	투명한 렌즈
	컬러렌즈	컬러를 인쇄하여 미적인 요소 추가
착용주기	1-Day	하루 착용
	FRP	2주 - 4주, 또는 그 이상 착용주기
렌즈기능	일반시력보정	일반적인 근/원시의 보정
	노안/난시보정	2주 - 4주, 또는 그 이상 착용주기
재질	Hema / Hydrogel	Hema 및 하이드로겔
	Si-Hydrogel	실리콘 하이드로겔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제품 종류별 매출비중(3Q25 누적 별도기준)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지역별 매출

지역별 매출액은

국내 18%,

아시아 48%,

유럽 23%,

기타 11%로

해외 비중이 82% 차지

인터로조의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지역별 매출액은 국내 18%, 아시아 48%, 유럽 23%, 기타 11%로 해외 매출 비중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는 자체 브랜드 매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는 고객사를 통해 발생하는 OEM/ODM 매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매출비중 18%)

OEM/ODM 중심의 해외 사업과 달리, 국내에서는 자체 브랜드 클라렌을 기반으로 한 B2B2C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다. 하이드로겔 제품군(클라렌)과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군(클라렌 오투오투)을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00개 이상의 안경원 및 렌즈 전문샵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아시아(매출비중 48%)

아시아 중 일본 비중이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약 9% 수준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서는 피아(PIA), 신시아, 프롬라이즈 등 컬러렌즈 전문 유통업체들과 OEM/ODM 계약을 체결하여 하이드로겔 컬러렌즈를 중심으로 납품하고 있다. 특히 주요 거래처인 피아와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주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시장은 컬러렌즈 중심의 수요 구조가 뚜렷한 만큼, 하이드로겔 기반 컬러 제품이 매출의 주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완전 자회사인 상해법인을 통해 자체 브랜드 하이드로겔 및 실리콘하이드로겔 컬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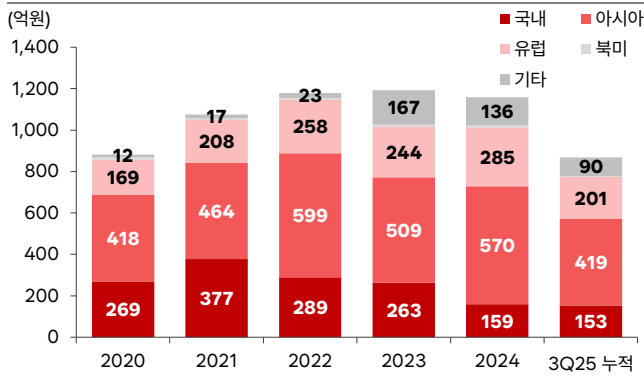
유럽(매출비중 23%)

독일(콘텍트렌즈 서비스)/프랑스(알랭사)/오스트리아(MPG)/이탈리아(마셜인터그룹)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다수 업체들과 OEM/ODM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및 실리콘하이드로겔 기반의 투명/컬러 제품을 모두 납품하고 있다. 하이드로겔 컬러렌즈(미용성 중시) 중심의 아시아 시장과 달리, 유럽은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기능성 중시) 비중이 약 4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투명 렌즈가 약 95%를 차지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기타(매출비중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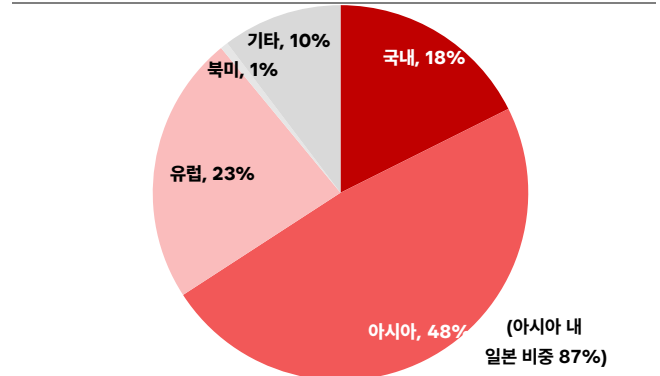
중동 지역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의 옵티컬 서플라이즈, 사우디의 로즈 홀딩스, UAE의 아이와 등 다양한 업체와 OEM/ODM 계약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동은 얼굴을 가리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눈 화장용 컬러렌즈 수요가 강한 시장으로 하이드로겔 컬러 렌즈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로조 지역별 매출액 추이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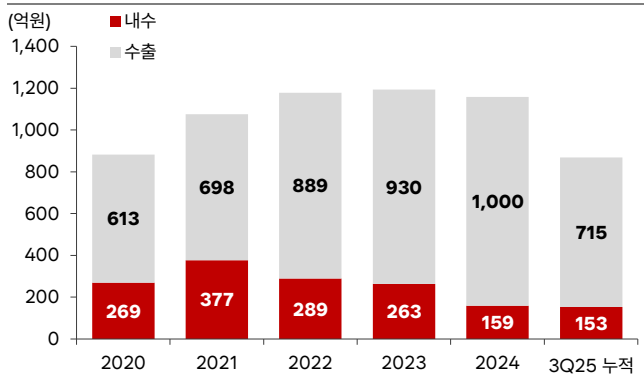
인터로조 지역별 매출 비중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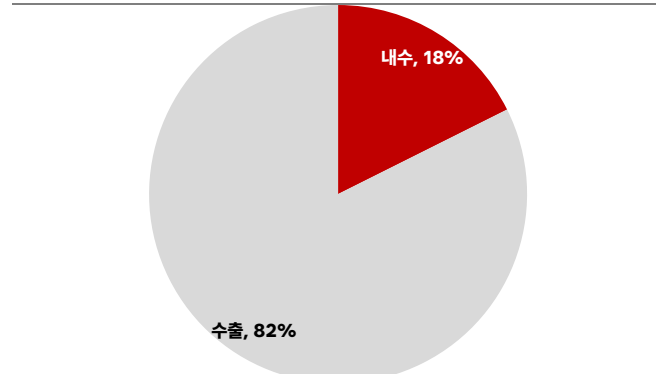
주: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인터로조 내수/수출 매출액 추이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내수/수출 매출 비중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3 주주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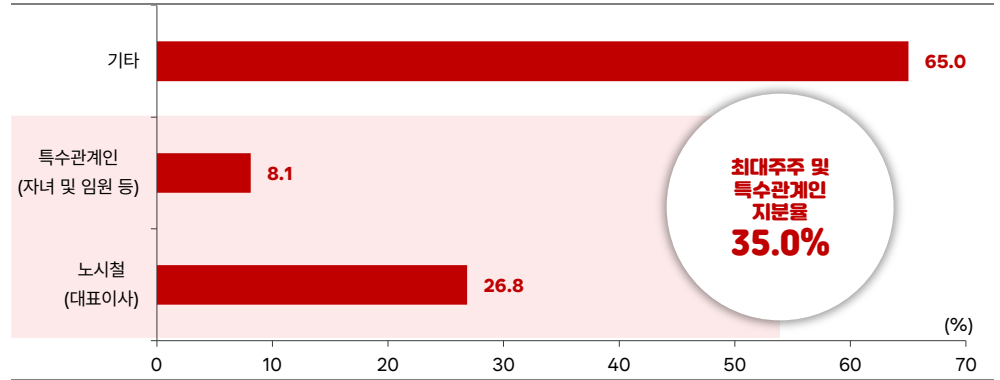
2025년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며 주주환원 정책 강화

2025년 3분기 말 기준 인터로조의 최대주주는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노시철로,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26.9%이다. 자녀인 노우탁(4.2%), 노윤희(2.4%)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35.0%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2025년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2025년 2분기 중 86.8만주, 4분기 중 93.5만주 등 총 180만주의 자사주를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각하였으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수 대비 약 13.6%, 취득금액 기준 369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총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2026년 2월

24일 기준 약 37.7%까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배력은 한층 공고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로조 주주현황(3Q25말 기준)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6년 2월 24일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7%



산업 현황

1 시력 교정 인구 증가에 따른 콘택트렌즈 시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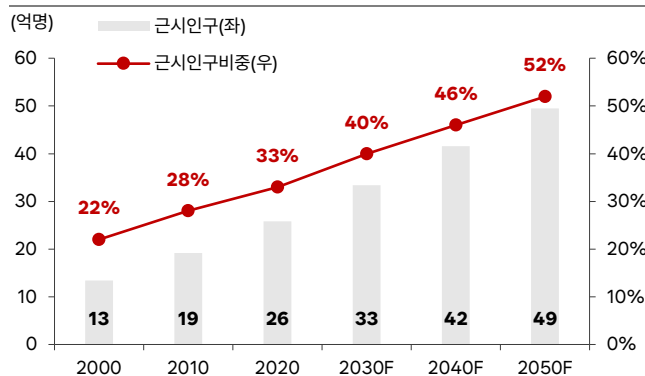
근시 인구 증가로 콘택트렌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근시 인구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안과 전문가 교육 기관인 Woo University에 따르면 전 세계 근시 인구 비율은 2000년 22%에서 2020년 33%까지 상승하였으며, 2050년에는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근시 인구 증가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력 교정 수요 역시 확대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수요 기반 확대는 실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콘택트렌즈 시장 상위 25개국의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 성장하였다.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Grand View Research는 글로벌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가 2024년 29조원 규모에서 2030년 49조원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8.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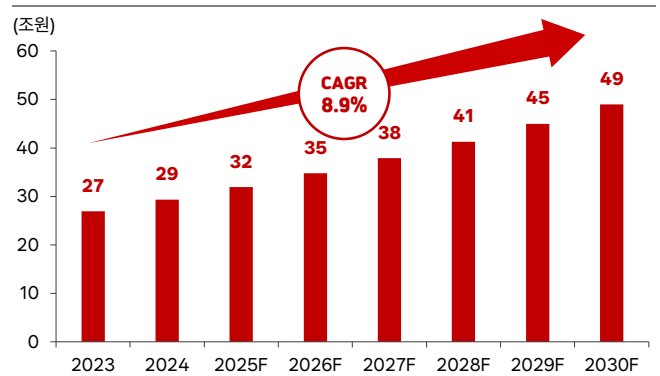
제품 측면에서는 원데이 제품 비중 확대와 실리콘하이드로겔로의 전환이 주요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원데이 렌즈는 위생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고, 교체 주기가 짧아 매출 회전이 빠르다. 또한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은 산소 투과율이 높아 장시간 착용에 적합한 고급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기존 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ASP가 15% 이상 높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콘택트렌즈 시장 내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매출 비중은 2024년 기준 70%를 상회하였다.

근시 인구 전망



자료: Woo University,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시장규모 전망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을 중심으로 인터로조의 해외 OEM/ODM 사업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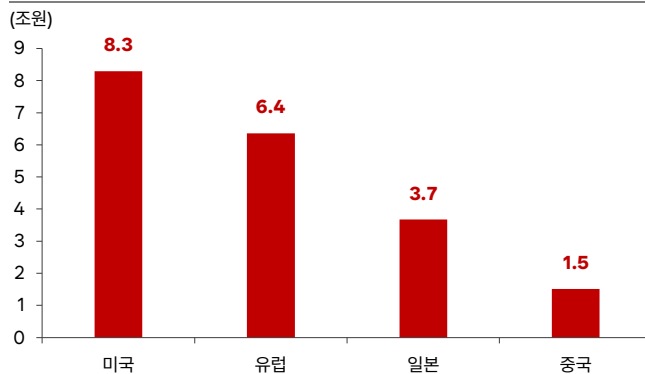
인터로조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2021년 제3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매출 기준 500~600억원 규모의 CAPA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최대 수준의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실리콘하이드로겔 컬러 렌즈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으로, 당사는 ASSL(Aqua Safety Shield Layers) 코팅 기술을 통해 렌즈 표면의 습윤성을 유지하고, DSSL(Dual Safety Shield Layers) 구조를 적용해 안료가 안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Grab-Soo(습윤성) 기술과 Si-Hy Printing Technology를 통해 실리콘 소재에서도 안정적인 컬러 구현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생산 규모를 넘어 기술력 기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미국 Big4 렌즈 기업들은 제조 설비가 클리어 제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 난이도가 높은 실리콘하이드로겔 컬러 렌즈는 아시아 업체에 일부 위탁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실리콘하이드로겔 컬러 제품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인터로조는 OEM/ODM 계약 확대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2024년 기준 상위 4개 지역(미국/유럽/일본/중국)의 시장 규모가 각각 미국 8.3조원, 유럽 6.4조원, 일본 3.7조원, 중국 1.5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들 지역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로조는 현재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콘택트렌즈 제조를 한국이나 대만에 OEM/ODM 형태로 위탁하는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일본 시장 성장에 따라 인터로조와 같은 제조업체에 수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의 대일 콘택트렌즈 수출액은 2020년 563억원에서 2025년 1,044억원으로 확대되며 6년간 연평균 11% 성장하였다. 더불어 인터로조는 2027년 일본 시장 내 실리콘 컬러 렌즈 제품 판매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승인 시 추가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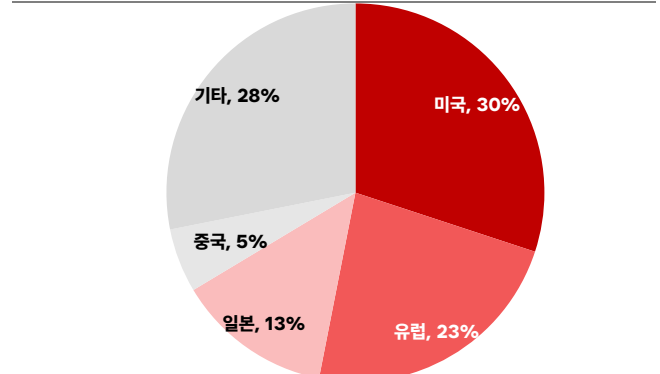
한편, 아직 매출 비중이 낮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도 채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실리콘하이드로겔 소재인 Inofilcon을 개발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내 미국 FDA 510(k) 승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인 획득 시 미국 콘택트렌즈 Big4 중 하나인 B사와의 협업을 통해 OEM/ODM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역시 2028년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 허가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콘택트렌즈 지역별 시장규모(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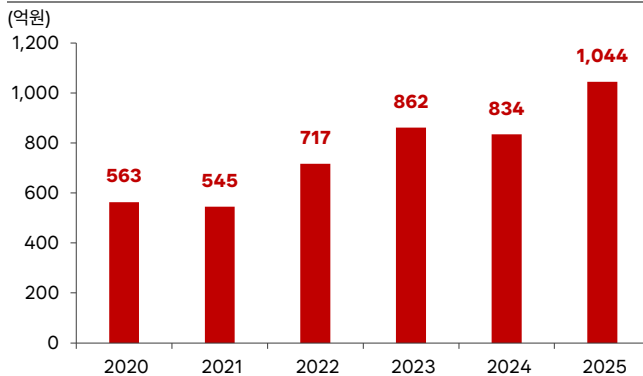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콘택트렌즈 지역별 시장규모 비중(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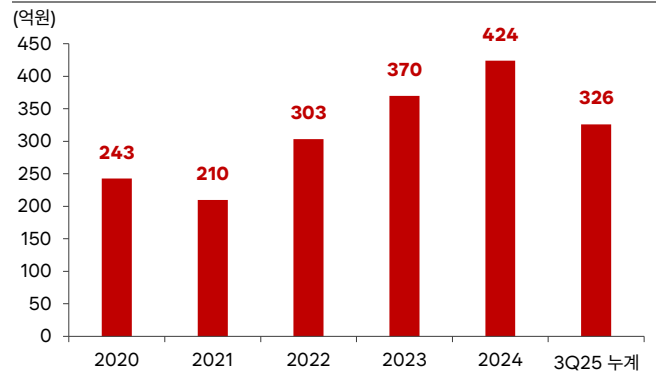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일본 향 콘택트렌즈 수출액 추이



자료: Tras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주요 고객 PIA(일본) 향 매출액 추이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실리콘하이드로겔 컬러 렌즈 핵심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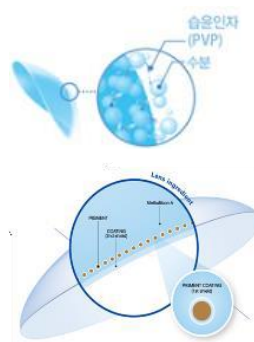
▶ Aqua Safety Shield Layers (ASSL)

렌즈표면을 매끄럽게하고, 보습감을 유지하는 습윤성 코팅기술



▶ Dual Safety Shield Layers (DSSL)

잉크가 안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중 보호막을 형성하는 안료인쇄방식 기술



▶ Blue light Blocking Technology

- Blue Color Zone 블루 칼라를 사용해서 착용시 심미성을 강화
- COOL & CLEAR 광학시야 소프트렌즈와 동일한 형태의 선명한 시야 확보
- Blue Light Blocking Zone Yellow 착색 기술 BBYL (Blue light Blocking Yellow Layer)
- 낭비 없이 필요한 부분만 블루라이트 400~450nm 파장 11~21% filtering 영역



▶ Grab-Soo technology

실리콘하이드로겔-컬러 렌즈의 습윤성 향상 기술

▶ Si-Hy Printing Technology

소수성의 실리콘하이드로겔에 섬세하고 안전하게 컬러를 구현하는 기술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공장별 생산 제품

공장명	라인 수	재질	착용주기	색상
제1 공장 (Plant A)	12개	하이드로겔/실리콘하이드로겔	원데이/FRP	투명
제2 공장 (Plant C)	38개	하이드로겔/실리콘하이드로겔	원데이	컬러
제3 공장 (Plant S)	12개	실리콘하이드로겔 전용	원데이	투명/컬러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생산 수율 개선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생산 수율 2024년 말 기준
62%에서 2026년 2월 기준
76%까지 빠르게 개선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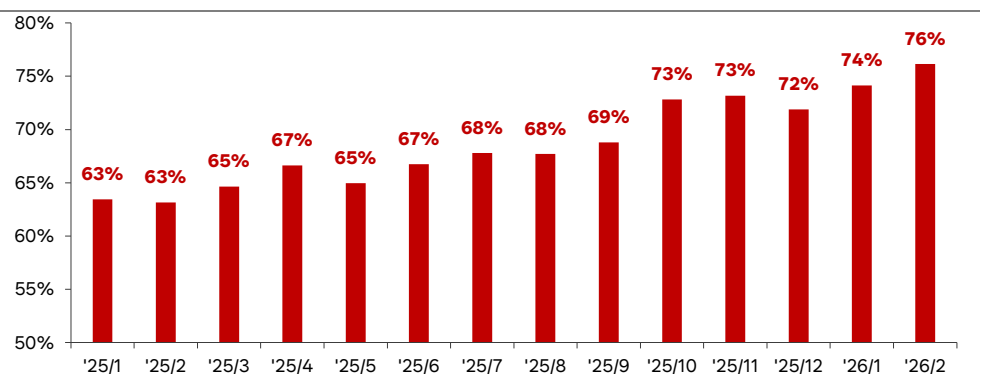
인터로조의 생산 수율은 공정 개선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동사의 생산 수율은 2024년 말 기준 약 62% 수준이었으나, 2026년 2월 기준 약 76%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분리 공정과 검사/접착 공정의 최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터로조는 자사 제품을 몰드캐스팅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몰드캐스팅은 렌즈 형상이 새겨진 틀에 액체 원재료를 주입해 경화시킨 뒤 렌즈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렌즈 형태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 현대 렌즈 제조 기술 중 가장 효율적인 공법으로 평가받는다.

생산 공정은 크게 사출/조립 -> 분리 -> 검사/접착 -> 멸균/포장 순으로 진행되며 공정별 세부 과정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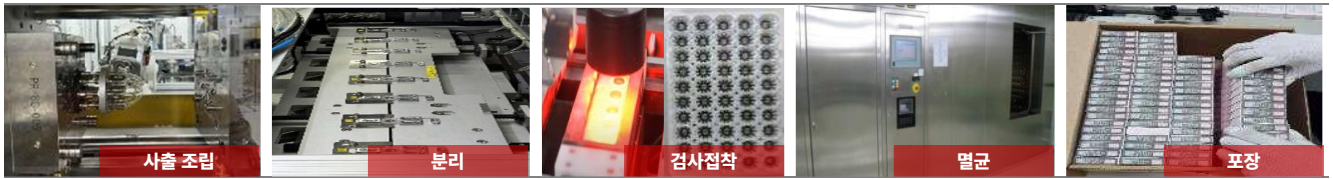
- 사출/조립 단계: 정밀 가공된 몰드(틀)에 원재료를 주입해 렌즈를 형성하고, 위아래 금형을 맞물려 일정한 모양으로 굳히는 과정을 거친다.
- 분리 단계: 경화된 렌즈를 몰드에서 분리하게 되는데, 렌즈 특성상 얇고 부드러워 이 과정에서 찢어짐이나 변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도의 공정 안정성이 요구된다.
- 검사/접착 단계: 분리된 렌즈를 용기에 담고 식염수와 함께 밀봉하기 전 고성능 카메라 및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활용해 렌즈의 표면 및 엣지(edge) 불량을 전수 검사하여 양품만 선별한다.
- 멸균/포장 단계: 고온 및 고압 멸균 과정을 거쳐 최종 포장 단계로 이어진다.

인터로조 제품 생산 수율 추이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제품 생산 공정(몰드캐스팅 방식)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리 단계와 검사/접착 단계에서
유의미한 수율 개선 달성

동사는 이 가운데 분리 단계와 검사/접착 단계에서 유의미한 수율 개선을 달성했다. 특히 분리 공정은 불량률이 집중되던 구간으로 동사는 해당 공정에서 제품 정위치 -> 1차 압출 -> 2차 압출의 3단계 정밀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렌즈 위치를 안정화한 뒤 단계적으로 압력을 가해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파손 및 변형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분리 공정 수율은 2024년 말 78%에서 2025년 말 95%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접착 단계에서도 고성능 카메라 기반 표면 및 엣지 불량 정밀 판독과 AI 이미지 검사 도입을 통해 공정 안정성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공정 수율은 2024년 말 92%에서 2025년 말 98% 수준까지 상승했다. 동사는 이러한 공정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 전체 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가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가 절감 노력 역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장 설비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효율화, 미사용 부자재 폐기 축소, 전력 사용량 절감, 소모품 비용 절감 등 비용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5년 연간 GPM은 2024년 대비 4.7%p 개선되었으며, 향후 수율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가 누적되면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공정/접착공정 수율 개선 내용



- 몰드 투입후 몰드내 Dry Lens를 분리하는 공정
- 분리 공정에서 Dry Lens가 파손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면서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 기술
- 분리 수율 78%에서 95%로 개선 진행 중
- 블리스터 안에 Lens를 넣고 식염수와 함께 포장하는 공정
- 블리스터 안에 Lens를 고성능 카메라(비전)로 전수 검사하여 양품 Lens만 열균 공정으로 이동
- 접착 수율 92%에서 98%로 개선 진행 중 (25.4Q)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리공정 최적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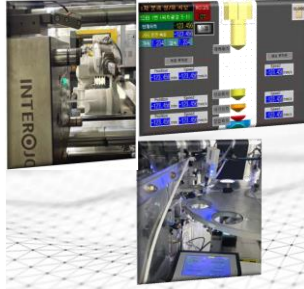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수율 제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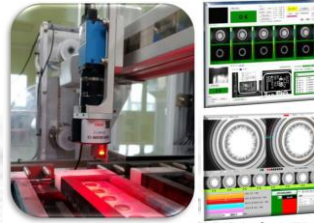
생산기술 표준화

- 생산공정의 DOE로 생산 SOP 최신화
(DOE: Design of Experiments)
- 설비 표준화된 상태의 Fool Proof 적용하여
- Human Error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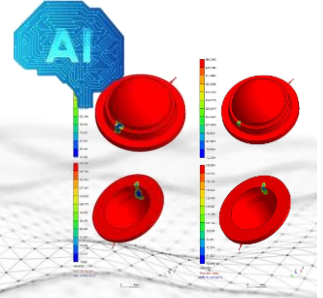
New Vision 검사 System 장착

- Dry/Wet 렌즈 검사에 최적화된 Vision System
- 커스텀 마이징 멀티포커스 렌즈 적용
- 렌즈의 면, edge 불량 판독을 위한 다양한 조명
- AI Image Learning을 통한 검출력 향상



AI활용 최신 기술

- 몰드 AI 해석으로 금형 최신 기술 전목
- AI 이미지 검사로 고객 불량 "Zero"화
- AI 활용 불량 트렌드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Review

공정 효율화에 따른 수출 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전년대비 크게 증가

2월 6일 공시된 인터로조의 2025년 연간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1,185억원(+2.3% YoY), 영업이익은 195억원(+234.8% YoY)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1) 공정 효율화에 따른 수출 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본격 반영되었고, 2) 약 31억원 규모의 대손상각비 환입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영업이익률은 16.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4%p 개선되었다.

동사는 2023년 지정감사 이후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왔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2022년 11.1%에서 2024년 20.5%까지 상승하였고, 대손상각비는 2023년 48억원, 2024년 19억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다만 2025년에는 악성 매출채권에 대한 반품 처리가 진행되었고(약 100억원 수준으로 파악), 약 31억 원의 대손상각비 환입이 발생하면서 동사 이익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3Q25말 매출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16.2%로 감소).

대손상각비 환입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2025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약 8.8%p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정 효율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광고선전비, 판촉비 등의 비용 절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2025년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대비 4.7%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 대비 판관비율은 전년 대비 6.7%p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대손상각비 환입 효과를 제외할 경우 YoY +4.1%p 개선).

2026년 실적 전망

국내외 채널 확대, 수출 개선 효과
등에 따라 2026년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예상

인터로조의 2026년 예상 매출액은 1,371억 원(+15.7% YoY), 영업이익은 291억 원(+49.5% YoY)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외 채널 다변화에 따른 외형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가 전사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 효율화에 따른 생산 수출 개선이 지속되면서 2026년에도 원가 절감 효과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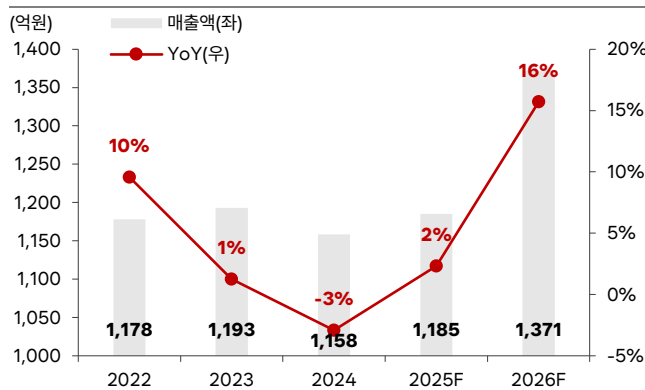
국내의 자체 브랜드 클라렌을 중심으로 채널 다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5년 3분기 클라렌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입점하며 면세점으로 판매 채널을 확장하였고,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에 클라렌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국내 매출은 과거 악성 매출채권 관련 반품 영향으로 약 100억 원 수준이 차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2026년에는 해당 반품 영향이 약 5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2026년 동사가 목표로 제시한 국내 매출 270억 원(+37% YoY)은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해외 역시 채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OEM/ODM 공급 확대를 위해 유럽의 대형 리테일 기업인 S사와 G사와의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S사는 유럽 내 약 2,0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안경점 시

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이고, G사는 유럽 최대 안경 기업으로 유럽 내 5,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 시장은 실리콘하이드로겔 소재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현재 인터로조의 유럽 매출 중 약 43%가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은 기존 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ASP가 15% 이상 높아 비교적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유럽 매출이 확대될 경우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전사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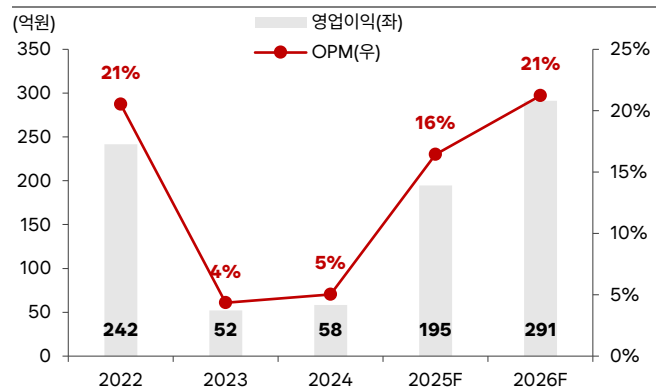
그 외 지역에서도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확대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2026년 1분기 중 미국 FDA 510(k) 승인을 대기하고 있으며, 승인 획득 시 글로벌 Big4 기업 중 하나인 B사를 통해 미국 내 OEM/ODM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7년에는 단일 국가 기준 세계 2위 시장인 일본에서 실리콘하이드로겔 컬러 제품 판매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국에서도 2028년 실리콘하이드로겔 제품 판매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로조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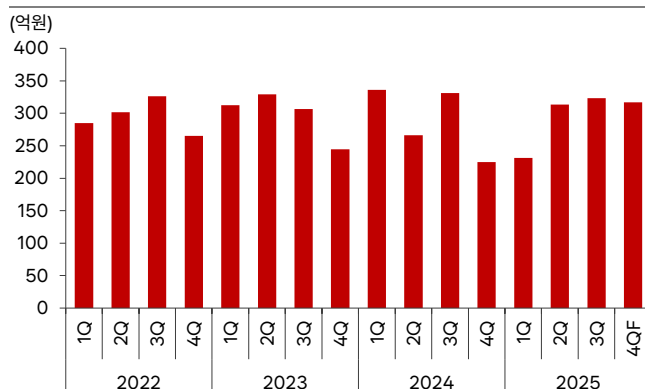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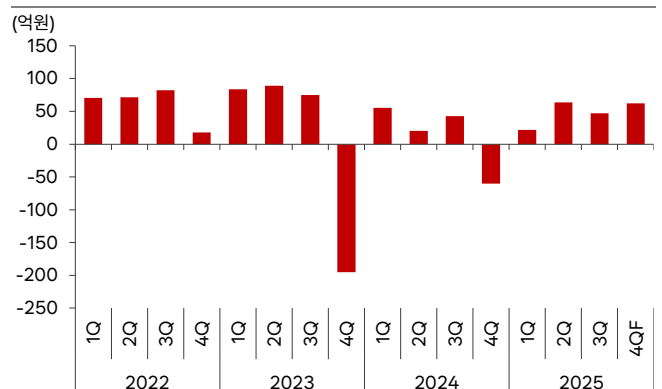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연결기준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실적 Table

(단위: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178	1,193	1,158	1,185	1,371
(YoY)	96%	1.3%	-2.9%	2.3%	15.7%
하이드로겔(별도)	941	971	962	1,040	1,144
실리콘하이드로겔(별도)	219	179	152	129	194
기타(별도)	6	30	37	1	16
기타 연결법인 등	13	13	8	15	17
매출총이익	536	366	355	420	552
(YoY)	6.8%	-78.5%	12.0%	234.8%	49.5%
영업이익	242	52	58	195	291
(YoY)	6.8%	-78.5%	12.0%	234.8%	49.5%
영업이익률	20.5%	4.4%	5.0%	16.4%	21.2%
세전이익	216	30	17	154	250
지배주주순이익	186	32	2	130	212
(YoY)	26.4%	-83.1%	-94.2%	6954.8%	62.7%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6년 PER 11.7배**2026년 PER 11.7배로****Peer 기업 평균과 유사한****수준이나, 향후 해외 중심의 실적****확대 주목할 필요**

인터로조의 2026년 PER은 11.7배로, Peer 기업 평균(11.3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Peer로 선정한 St.Shine Optical(대만)과 Pegavision(대만)의 2026년 PER은 각각 10.0배, 12.3배 수준이며, 두 기업 모두 OEM/ODM 중심의 사업 구조를 영위한다는 점에서 인터로조와의 사업 유사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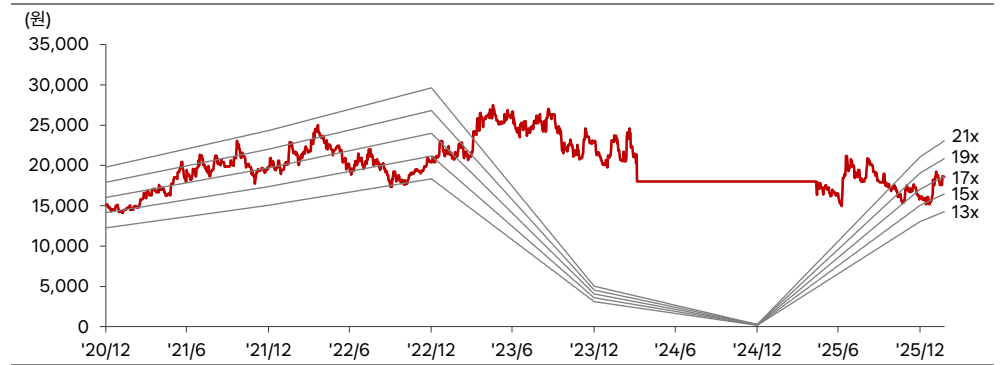
St.Shine Optical은 대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소프트 콘택트렌즈 제조 기업으로, 특히 컬러렌즈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OEM/ODM과 자체 브랜드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몰드캐스팅 기반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가 경쟁력이 높고, 원데이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Pegavision은 대만의 원데이 소프트렌즈 전문 제조 기업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OEM/ODM 비중이 높은 업체다. 모회사 Pegatron 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동화 설비와 고정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실리콘하이드로젤 렌즈 생산 역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OEM/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로조의 과거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해외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갔던 2016년~2022년 기간동안 평균 PER 15.6배를 기록했으며, 최대 21배까지 상승한 바 있는데, 이는 해외 중심의 가파른 매출 성장과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동사의 실적이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해외 매출은 2015년 320억 원에서 2024년 1,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5년간 연평균 약 1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5년에도 해외 매출은 1,000억 원 내외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외 매출 비중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2026년에는 유럽 채널 다변화를 통한 추가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며, 1분기 중 북미 FDA 승인을 획득할 경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규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해외 중심의 실적 확대가 동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터로조 PER밴드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터로조 Peer 그룹 테이블

구분		인터로조	St.Shine Optical(대만)	Pegavision(대만)
티커		119610 KQ Equity	1565 TT Equity	6491 TT Equity
종가 (2/23)		18,590 원	112\$	294\$
시가총액 (2/23, 억원)		2,122	2,589	10,532
매출액(억원)	2023	1,193	1,854	2,864
	2024	1,158	2,050	3,071
	2025F	1,185	1,958	3,252
	2026F	1,371	2,029	3,619
영업이익(억원)	2023	52	256	828
	2024	58	361	931
	2025F	195	295	835
	2026F	291	322	1,057
OPM(%)	2023	4.4	13.8	28.9
	2024	5.0	17.6	30.3
	2025F	16.4	15.1	25.7
	2026F	21.2	15.9	29.2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023	32	230	699
	2024	2	337	825
	2025F	130	213	752
	2026F	212	263	899
PER(배)	2023	95.6	17.7	17.5
	2024	1,290.6	13.4	16.2
	2025F	16.0	12.3	14.0
	2026F	11.3	10.0	12.3
PBR(배)	2023	1.7	1.6	3.1
	2024	1.4	1.5	2.7
	2025F	1.2	0.9	2.1
	2026F	1.3	0.8	1.8
ROE(%)	2023	1.8	8.8	20.3
	2024	0.1	11.8	17.5
	2025F	7.5	6.9	14.4
	2026F	11.6	7.7	15.2

주: 1) 해외기업 수치 원화로 환산, 2) 2025, 2026년 추정치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인터로조는 당사 추정),
자료: Fnguide, Eikon,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인터로조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이다. 당사는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시 매출 및 영업이익의 하방 압력이 클 수 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유럽 시장의 통화 가치 변동은 당사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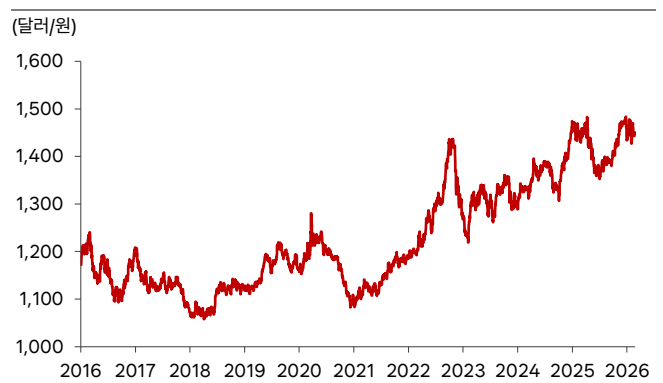
다만 당사는 이러한 환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활용한 일부 환헤지를 진행하고 있다(매출액의 약 10% 내외로 추산). 헤지 비중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환율 급변 구간에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환율변동이 인터로조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2024년 기준)

통화 구분	5% 상승 시	5% 하락 시
USD	9.2	-9.2
EUR	0.8	-0.8
CNY	3.7	-3.7
JPY	0.0	0.0
CAD	0.0	0.0
합계	13.7	-13.7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인터로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178	1,193	1,158	1,185	1,371
증가율(%)	9.6	1.3	-2.9	2.3	15.7
매출원가	643	827	803	765	820
매출원가율(%)	54.6	69.3	69.3	64.6	59.8
매출총이익	536	366	355	420	552
매출이익률(%)	45.5	30.7	30.7	35.4	40.2
판매관리비	294	314	297	225	261
판매비율(%)	25.0	26.3	25.6	19.0	19.0
EBITDA	334	148	160	296	389
EBITDA 이익률(%)	28.4	12.4	13.8	24.9	28.3
증가율(%)	6.9	-55.8	8.3	84.5	31.5
영업이익	242	52	58	195	291
영업이익률(%)	20.5	4.4	5.0	16.4	21.2
증가율(%)	6.8	-78.5	12.0	234.8	49.5
영업외손익	-26	-3	-41	-41	-41
금융수익	2	15	9	14	15
금융비용	39	43	86	78	78
기타영업외손익	11	25	36	23	23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19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16	30	17	154	250
증가율(%)	2.3	-86.0	-43.8	801.6	62.7
법인세비용	30	-1	15	24	39
계속사업이익	186	31	2	130	21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86	31	2	130	211
당기순이익률(%)	15.8	2.6	0.2	11.0	15.4
증가율(%)	26.5	-83.1	-94.3	7,141.0	62.7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86	32	2	130	212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0	85	198	179	183
당기순이익	186	31	2	130	211
유형자산 상각비	90	93	99	98	95
무형자산 상각비	3	3	3	3	2
외환손익	6	3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81	-118	31	-54	-129
기타	16	73	63	2	4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87	-116	262	-79	-7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1	42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71	-76	-32	-79	-79
기타	-116	-41	252	0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9	70	-327	-37	-66
차입금의 증가(감소)	213	70	-195	1	7
사채의증가(감소)	0	120	-5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56	-75	-75	-38	-73
기타	-78	-45	-7	0	0
기타현금흐름	2	-0	2	-3	-3
현금의증가(감소)	-86	38	134	61	35
기초현금	106	21	58	193	254
기말현금	21	58	193	254	288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1,365	1,483	1,280	1,366	1,574
현금성자산	21	58	193	254	288
단기투자자산	220	286	8	8	8
매출채권	644	677	588	601	696
재고자산	406	392	415	424	491
기타유동자산	74	70	77	79	91
비유동자산	1,228	1,212	1,064	1,043	1,024
유형자산	913	904	791	772	756
무형자산	9	14	12	9	7
투자자산	146	106	114	114	114
기타비유동자산	160	188	147	148	147
자산총계	2,593	2,695	2,344	2,408	2,598
유동부채	750	810	634	641	691
단기차입금	298	388	246	246	246
매입채무	38	31	18	18	21
기타유동부채	414	391	370	377	424
비유동부채	50	116	11	11	12
사채	0	92	0	0	0
장기차입금	4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0	24	11	11	12
부채총계	800	926	645	652	703
자배주주지분	1,793	1,769	1,700	1,756	1,895
자본금	66	66	66	66	66
자본잉여금	403	424	425	425	425
자본조정 등	-175	-173	-168	-168	-16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7	-9	-12	-12	-12
이익잉여금	1,505	1,462	1,389	1,446	1,584
자본총계	1,793	1,769	1,699	1,756	1,895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14.5	95.6	1,290.6	16.0	11.7
P/B(배)	1.5	1.7	1.4	1.2	1.3
P/S(배)	2.3	2.5	2.1	1.8	1.8
EV/EBITDA(배)	11.8	29.9	21.6	6.5	5.9
배당수익률(%)	2.9	2.6	1.7	4.1	3.4
EPS(원)	1,411	239	14	1,003	1,639
BPS(원)	13,567	13,386	12,859	13,608	14,681
SPS(원)	8,915	9,026	8,765	9,138	10,626
DPS(원)	600	600	300	650	650
수익성(%)					
ROE	10.6	1.8	0.1	7.5	11.6
ROA	7.6	1.2	0.1	5.5	8.4
ROIC	11.5	1.1	0.3	10.2	14.8
안정성(%)					
유동비율	181.9	183.2	201.8	213.0	227.6
부채비율	44.6	52.3	37.9	37.1	37.1
순차입금비율	12.9	14.0	9.9	6.2	4.3
이자보상배율	19.4	1.8	1.8	7.6	11.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5	0.5	0.5	0.5
매출채권회전율	1.9	1.8	1.8	2.0	2.1
재고자산회전율	3.2	3.0	2.9	2.8	3.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인터로조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2.03.22	인터로조-2022년도 이어질 호실적
2026.02.26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26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